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비롯한 전통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특별시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 전경. <전주시 제공>

#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논의 본격화

### 국회서 특별법 제정 정책 세미나...의견 수렴 나서 또 문화중심도시 광주와 차별화 위해 전통문화 부각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국회에서 '전주문화특별법'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갖고 문화특별시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주시는 관련법에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

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초지방정부의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특별자치 제도'란 주제발표를 해 "전주시가 주도권을 갖는 문화특별시의 추진은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언급한 뒤 "문화 발달을 위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의 통합이 선도적으로 이뤄지는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에 대체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원도연 원광대 교수도 "전통문화를 산업화할 수 있는 전주의 지력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문화특별시 지정 효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과제와 역할을 주문했다. 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토론자로 나서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도시 재생과 연계시킴으로써 문화를

통해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전주, 문화특별시 전주를 대한민국의 보물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화특별시 추진과 관련,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와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라도 전통문화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100년후 보물 만든다"...전주시 미래유산지킴이 나서

100년 뒤 전주시 대표 보물을 만든다. 전주시가 사라질 수도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시는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생활유산 등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전주의 문화유산을 미래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존·관리하기로 했다.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구성해 미래유산 보존을 본격 추진한다. 미래유산은 근현대 전주를 배경으로 시민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사건이나 인물,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 자산 등을 말

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100년 후 전주를 빛내는 보물들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 전문가 조사를 거쳐 소유자 동의를 얻은 뒤 미래유산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선정된 미래유산에는 미래유산 표식과 안내판 등이 설치되며, 이후 전주시 미래유산 홈페이지와 미래유산 프로그램 등에도 등재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삶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 평가를 받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상황에서 미래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몰려드는 관광객에 전북 리조트·휴양림 예약 '별 따기'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전북 유명 리조트와 휴양림 관계자들이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줄거늘 비명"을 지르고 있다. 빈방을 찾는 문의전화도 쏟아지면서 전화 받기

도 버거울 지경이다.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고산자연휴양림은 피서철 예약이 거의 끝났다. 휴양림에는 있는 53동의 숙박시설과 카라반 7대

는 오는 8월 20일까지 예약이 잦다. 주말 객실 예약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로 평일 예약만 기대할 수 있는 정도다. 텐트 81개를 수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의 예약률은 현재 30~40% 정도지만 조만간 예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변산 대명리조트를 비롯한 주요 숙박시설도 휴가철을 앞두고 주말에는 빈방을 찾기 어려운 정도다. 대표적 피서지로 알려진 군산 선유도도 휴가철을 맞아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 "물 걱정 마세요" 고군산군도 상수도 공급

### 신시도~무녀도 10월부터 말도·어청도 등도 공사 착수

군산시 고군산군도 내 섬을 대상으로 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들 섬 주민들은 식수난을 덜게 됐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2011년 착공한 광역상수도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옥도면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에 이달 초부터 식수가 공급되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애초 10월까지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극심한 봄 가뭄으로 지하수와 저수지가 말라 식수가 부족해지자 3개월 일찍 통수했다.

광역상수도 관로는 전체 19.7km 가운데 신시도~무녀도 구간(16.8km)이 완료되고 배수지 공정률도 90%에 달해 10월부터 3개 섬 전체에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군산시측은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섬 정주 여건이 향상되고 관광객 유치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또 인근 섬의 식수난 해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6월부터 말도 내 관정개발과 해수담수화 공사에 착수했고, 조만간 비안도의 저수지 준설공사와 어청도의 식수관로 공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 생활 속 예술 '의식주 공방전'

### 25일부터 정읍시립미술관

일상 생활 공간에 녹아든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정읍시립미술관이 마련한 '의식주 공방전(사진)'은 '미술관이 곧 우리들의 생활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낸 전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시는 의식주를 통해 본 예술의 세계를 주제로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공예 작품들을 통해 '의(衣)·식(食)·주(住)'를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다. 간단한 체험활동도 곁들여진다.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공예 작가 21명의 평면과 입체, 설치작품들이 공간을 채운다. 작품 속에 투영된 작가들의 창작 세계를 엿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정읍 피향정 연꽃 향기에 취해보세요



정읍시 태인면 피향정(보물 제289호) 연못 내 연꽃이 만개하고 있다. 연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어우러지는 한옥 정자와의 자연경관을 보려는 관광객·사진작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정읍시측은 다음달 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피향정은 연못에 핀 연꽃 향기가 주위

에 가득하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신라 말 고운 최치원 선생이 태산군수로 재직할 때 이곳 연못가를 거닐며 풍월을 읊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피향정 연꽃은 한때 정자와 연못 사이에 통신주가 세워지면서 경관이 훼손됐지만 정읍시의 조치로 예전의 경관을 되찾았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곡성 옥과를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5500
- 광주에서 1시간 거리 바닷가 대지 607㎡ 팬션주택 2층주택 1억2천
- 함평 손불면 월천리 바닷가에서 500m 대지 1197㎡ 대형저수지부근 4200만원
- 장흥군 수문해수목장 2896㎡ 전망좋은 2억2백
- 금매 장흥군 수문해수목장 3548㎡ 은행 1억3천 매도 3억7천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6천만원

**주택 · 원룸 · 아파트**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3천
- 월산동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126㎡ 2층주택 1억4백
- 월산동 원룸 중 3층 23㎡ 독립생활적합 2100만원

**투자 · 매도 · 교환**

- 영암군 신북면 상업지 2535㎡ 은행4억5천 공사가 매도 5억8천
- 월파면 안동 상업지역 367㎡ 주상복합 적합 4억8천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다가구·빌라·참고 적합 12억5천
- 요양병원적합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여건 좋음 7억
- 월산동 보리아파트부근 1층 65㎡ 식당·사무실용 6천만원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상가건물**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4천
- 남평아파트 2천세대 중심지 대지 885㎡ 층당 200평씩 공사중 16억5천
- 월산동 4차선과 2차선점 땅 129㎡ 철근조 2층상가주택 2억6천
- 충장로4가 요지 대지 261㎡ 건평 1128㎡ 전세3억 월 천만원수익 25억
- 유동 2층상가건물 대지 598㎡ 건평 334㎡ 건물 상태좋은 9억4천
- 월산동 새마을금고부근 2층상가건물 대지 226㎡ 매도 4억2천
- 월산동 농성초교너편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감정가 이하**

- 남구 송하동 산 22556㎡ 감정 2억5천선 은행 3천 매도 1억천
- 유동 좋은 모텔 대지 422㎡ 건평 984㎡ 감정12억선 교환가능 8억
-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4137㎡ 감정 2억5천선 은행 1억7600 매도 800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 광양, 싼 근린상가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210평 (실평 147평)**

**모든업종 오픈 가능**

**감정/시세 - 13억**

**매매 - 7억 8천만원 (조정가)**

**주인직매**

H.010-3605-5000

## 부동산 투자의 답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현재 가장 HOT PLACE인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인근 부동산을 강력 추천합니다.

**원룸**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25㎡, 건물 522㎡, 방 8개 [예산연수입 85백만원] 매가 15억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430㎡, 건물 306㎡, 방 8개 [예산연수입 67백만원] 매가11억원

**펜션**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637㎡, 방 9개, 매가 14.8억 (예산연수입 1억3백만원)

**전원주택**

-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대 483㎡, 건물 84㎡, 매가 3.7억
- 서귀포시 대정읍 신광리, 대 406㎡, 건물 67㎡, 매가 3억 [카페, 음식점가능]

**토지**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 4,664㎡, 계획관리, 매가 26억 [전원주택지]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전 2,774㎡, 계획관리, 매가 12.5억 [다가구주택, 전원주택지]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전 3,635㎡, 계획관리, 매가 21.9억 [전원주택지]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임야 5,983㎡, 생산관리, 매가 21.7억 (전원주택지)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전 2,777㎡, 자연녹지, 매가 10.9억 (단독주택, 펜션부지)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전 4,780㎡, 계획관리, 매가 16억 [산방산탄천 인근, 펜션부지]

NAVER  검색

26년 은행경력 노하우 올레탑공인중개사 기성후·기정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34 ☎064)792-8979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터**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